

# ‘-은/는’의 분포에 대하여

염재일\*  
홍익대학교

**Jae-II Yeom. 2001. On the Distribution of ‘-(N)un’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5.2, 57-74.** In this paper, I propose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restrictions on the distribution of the contrastive topic marker ‘-(n)un’ in Korean. A contrastive topic is associated with another focus. The association with focus is subject to syntactic island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syntactic restriction between a phrase attached with ‘-(n)un’ and a focused expression within the ‘-(n)un’ phrase itself. In this area there is a semantic requirement that the alternatives generated by a focused expression be maintained up to the phrase attached with ‘-(n)un’. Finally, when ‘-(n)un’ is used in an embedded clause, the whole sentence becomes natural when the contrastive topic introduced by ‘-(n)un’ and its alternative contrastive topic, which is presupposed by the contrastive topic marker, jointly constitute a more complex topic which is related to the whole context. And exclusiveness facilitates the formation of the whole complex context. (Hongik University)

## 1. 서론

‘-은/는’은 일반적으로 주제표시로 사용된다. 주제표시로 사용되는 것은 전적으로 문장의 첫머리에 나타나야 한다는 통사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서정수 1991, Kim 1994 참조). 하지만 ‘-은/는’은 또한 대조의 의미를 지니는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Han (1998)은 대조의 의미를 또다시 대조초점과 대조주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통사적 구조에 기준을 두고 구분하고 있다. 즉, 문장 첫머리에서 초점을 받고 쓰이면 대조주제, 문장 첫머리가 아니면 대조초점으로 분석한다. 이것은 주제적 성격과 초점적 성격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은/는’의 분포를 논의함에 있어서, 이미 통사적 위치가 제한된 용법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점을 수반하는 대조주제와 초점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제와의 차이가 초점의 유무와 초점이 지니는 의미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것이라면, 주제, 대조주제, 대조초점을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피상적인, 혹은 현상적인 구분이 될 것이다.

Büring(1994)에 의하면, 주제는 발화 전체에 대한 주제라고 하며, 대조주제는 발화 전체의 주제 중에서 일부의 하위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Büring(1994)에서의 대조주제는 앞에서의 대조주제와 대조초점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일반적인 주제와의 차이는 초점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점이 지니는 의미는 대체항(alternative(s))을 도입함으로써 여러 (하위)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말에서 대조주제는 일반적 주제와 서로 배타적인 분포를 보이지 않아서, ‘-은/는’이 일반적 주제표시로 사용되는 자리에 동일한 형태소가 대조주제로서의 용법으로 쓰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Büring의 대조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어에서의 대조주제표시로서의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상세한 논평과 제안을 해 준 두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두 논평자의 제언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수정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의 소홀함 때문이다.

† 121-791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과, Email: jiyem@wow.hongik.ac.kr

‘-은/는’의 분포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sup>1</sup>

Bolinger(1965)는 두 가지 고저강세(pitch accent)를 구분하고 있다. 그들은 보통 A강세(A-accent)와 B강세(B-accent)라고 불린다. A강세는 끝이 하강으로 끝나고, B-accent는 끝이 상승으로 끝난다. Jackendoff(1972)에 의하면, A강세는 전통적으로 진술(comment)과, B강세는 주제(topic)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다음의 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 (1) A: I'd like to know what time everyone arrived. Let's begin with John.  
 B: JOHN arrived at SEVEN.  
 A: What about Mary?  
 B: MARY arrived at EIGHT.

여기서 JOHN과 MARY는 B강세가 주어지고, SEVEN과 EIGHT는 A강세가 부여된다. B강세를 받는 JOHN은 독립변수를 도입하며, 그 값으로 'John'이라는 값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서 A강세를 받는 EIGHT가 종속변수를 도입하고 그 값으로 'eight'의 값을 부여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초점을 가지므로 둘 다 대체항을 유발한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독립-종속이라는 비대칭적 관계를 갖는다. 독립변수의 경우, 화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독립변수의 값이 여러 개 도입될 때, 같은 값이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화자가 화용적 제약을 어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값으로 도입되는 대조주제는 서로 달라지게 된다. 반면에,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따라 값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서로 다를 이유가 없다. 이러한 특성이 그들의 본질적인 차이이며, 이것이 두 강세의 차이가 지니는 함축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의 도입은 종속변수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따라서 B강세의 존재는 A강세와의 연결을 필요로 한다. Jackendoff는 B강세만 있을 경우에도 이 관계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 FRED doesn't write poetry in the garden.

FRED가 B강세를 받을 때, 그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이 주어져야 하는데, 종속변수의 값을 주는 A강세를 받는 표현이 없다. 이런 경우 긍정-부정의 대조가 종속변수를 이루고, 그 대조와 연계됨으로써 그 독립-종속 변수의 관계를 유지한다. 긍정-부정이 주장의 일부가 되어야 하므로 부정 요소는 전제부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2)는 (3b)보다는 (3a)의 의미로 해석된다.

- (3) a. It isn't Fred who writes poetry in the garden.  
 b. It is Fred who does not write poetry in the garden.

이것은 FRED가 부정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Bolinger와 Jackendoff의 독립/종속 변수의 구분과 그들의 의미적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말을 분석할 수 있다. B강세의 역할은 대조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말에서 ‘-은/는’이 이 기능을 한다고 가정되어 왔다. 그러나, B강세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B강세도 A강세와 마찬가지로 대체항을 유발하는데, 대체항의 유발은 초점의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B강세라고 하는 것이 초점과 주제의 복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좀더 복잡한 구조를 설정하면 이 두 가지가 구분된다.

- (4) a. 철수가 [[영회는]<sub>F</sub>]<sub>T</sub>예쁘다고 말했다.  
 b. 철수가 [[영회가]<sub>F</sub> 예쁘다고는]<sub>T</sub> 말했다.

1. Han(1998)에서도 지적하였는데, Hindi 등에서도 같은 형태소가 일반주제, 대조주제, 그리고 대조초점의 용법으로 쓰인다고 지적하였다. 다양한 언어에서 한 형태소가 세 용법으로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근본 의미는 하나라는 가정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B강세라고 할 때, (4a)의 경우처럼 초점과 주제가 겹치는 경우를 주로 다룬다. 그러나 (4b)처럼 초점과 주제표시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즉, 초점은 ‘영희’에 주어지지만, 주제는 ‘영희가 예쁘다고’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은/는’의 분포를 연구하므로 이에 대한 제약을 보려면 두 가지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즉, 대조주제 내부의 초점과 ‘-은/는’ 사이의 제약과 ‘-은/는’과 그에 연계되어 해석되는 외부 초점, 즉 A강세를 받는 초점과의 사이의 제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5) ... [ ... 초점1 ... ]은/는 ... 초점2(혹은 연산자)
- (i)           (ii)

여기서 초점1은 대체항을 생성하고 이로부터 ‘-은/는’이 결합된 구절은 각 대체항에 대한 대조주제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그 구절 자신도 그 대조주제 중에 하나를 형성한다. ‘-은/는’은 다시 종속변수를 이루는 다른 초점2나 연산자와 연계되어 해석된다. Rooth(1985)가 초점과의 연계(association with focus)가 일반적으로 통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초점과 연산자 사이에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sup>2</sup>

‘-은/는’의 분포는 단순하지는 않으며, 여러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크게 세 영역, 즉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5)의 (ii) 영역에 가해지는 제약을 논의한다. 이 영역에서는 통사적으로 제약, 즉, 섬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5)에서 (i) 영역을 논의하는데, 이 부분은 의미적으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초점이 만드는 대체항이 어떻게 대체주제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는 영역이므로 의미적 제약이 가해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는’이 형성하는 구는 발화상황에서 형성되는 대체주제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주제가 ‘-은/는’이 형성하는 구보다 더 큰 성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초점현상에서 관찰되는 것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별개의 원리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종속절에 있는 ‘-은/는’이 통사적 제약으로 인하여 주절과 연계되어 해석될 수 없는 경우에도 문장이 자연스러운 경우를 다룬다. 여기에는 대체주제의 존재가 쉽게 확인되고 대체주제들이 모여 전체주제를 형성할 수 있는 경우에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는 화용적 제약을 주장한다.

‘-은/는’에 대한 논의의 어떤 부분은 본 조사만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것이지만, 많은 부분은 다른 조사들, 특히 초점과 연계되어 해석되는 조사들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필요시 다른 조사들이 쓰인 예를 언급하게 되는데,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 2. ‘-은/는’의 사용에 대한 통사적 제약

앞에서 대조주제는 다른 초점 혹은 연산자와 연계되어 해석되고, 그 사이는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 두 영역 중에서 초점구와 연산자 사이의 영역, 즉, (5)에서의 (ii)를 먼저 고찰하겠다. 의미적으로 연계를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부정연산자와의 연계를 통하여 통사적 제약을 살펴겠다.<sup>3</sup> 다음의 문장들을 보자.

2. Drubig(1994)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초점(focus)과 초점구(focus phrase)를 구분하고, 초점구는 초점으로부터, 그와 연계되는 연산자와 통사적 제약을 어기지 않는 영역까지 투사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초점1이 부정연산자와 연계될 경우 ‘-은/는’이 나타나는 구절이 초점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에서는 ‘-은/는’의 분포를 통하여 두 영역에 관여하는 제약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3. 대조주제와 부정 연산자의 연계는 부정-긍정의 대조의 연계라고 앞에서 지적하였다. 절의 경계를 넘어서 부정-긍정의 대조 이외에 다른 초점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다.

- (6) a. 영희가 철수는 만나지 않았다.  
 b. 나는 [철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c. 나는 [철수는 바쁘다고] 말하지 않았다.

위의 세 문장에서 철수는 대체항을 생성해내고, 이 대체항과 관련하여 부정어를 해석함으로써 각각 다음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7) a. 영희가 다른 사람은 만났지만, 철수는 만나지 않았다.  
 b. 나는 다른 사람은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철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c. 나는 다른 사람은 바쁘다고 말했지만, 철수는 바쁘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예문들은 강세를 도입하는 ‘-은/는’은 같은 절뿐만 아니라, 상위절의 부정연산자와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주제와 연산자와의 연계에는 제약이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이 문장에서는 대조주제가 관계절 내부에 나오는데, 주절의 못과 연계되어 해석되는 경우,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8) \*나는 [NP[CP가끔 영희는 소개한] 잡지를] 읽지 못했다. (반면에 가끔 다른 사람은 소개한 잡지를 읽었다.)

(6)의 문장들과의 차이는 대조주제가 보여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관계절 내에 있다는 것이다. 관계절은 복합명사구(complex NP)의 대표적인 구조이다. 따라서 대조주제와 부정 연산자와의 연계에 대하여 복합명사구 제약(Complex NP Constraint)의 통사적 제약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복합명사구를 보자.

- (9) 나는 [NP[CP철수가 영희는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다.

이 문장에서 영희는과 못이 연계된다면 (10a)의 의미가 아니라 (10b)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10) a. 나는 철수가 영희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다.  
 b. \*나는 철수가 다른 사람은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철수가 영희는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다.

(10b)의 의미로 자연스러운 문장은 다음과 같다.

- (11) a. 나는 [NP[CP철수가 [영희를]<sub>F</sub>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다.  
 b. 나는 [NP[CP철수가 [영희를]<sub>F</sub>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지는 못했다.

즉, ‘-은/는’과 부정사 못 사이에 섬(Island)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영희가 초점을 받아야 하며, 이 초점에 의하여 대체항이 생성되어야 의도한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절(factive clause)의 경우를 보자.

- (12) ??나는 [철수가 그 일은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철수가 다른 일은 했다는 것을 알지만)

대조주제가 사실절에 나타났는데, 문장이 어색하다. 대조주제와 연산자의 연계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절에 대한 제약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가어절(adjunct clause)의 예를 살펴보자.

- (13) a. \*나는 [철수는 바쁘기 때문에]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혼자 그 일을 했지만)  
 b. 나는 [[철수가]<sub>F</sub> 바쁘기 때문에] 혼자 그 일을 하지는 않았다.

- (14) a. \*나는 [철수는 바쁠 때],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바쁠 때 (내가) 혼자 그 일을 했지만)  
 b. 나는 [[철수가]<sub>F</sub> 바쁠 때]는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았다.  
 c. 나는 [[철수가]<sub>F</sub> 바쁠 때] 혼자 그 일을 하지는 않았다.

(13a)와 (14a)에서 대조주제가 부사절을 넘어 연산자와 연계된다면 각각 (13b)와 (14b,c)의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13a)와 (14a)는 그런 의미로는 쓰일 수 없다. (13b)와 (14b,c)가 의도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은/는’과 부정어 사이에 섬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사적 제약은 비교량동사(non-bridge verb)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sup>4</sup>

- (15) ??나는 [철수가 이 책을 읽었다고] 투덜거리지 않았다.  
 (= 나는 철수가 다른 책을 읽었다고 투덜거렸지만 철수가 이 책을 읽었다고 투덜거리지 않았다.)  
 나는 [철수가 [이 책을]<sub>F</sub> 읽었다고] 투덜거리지는 않았다.

이 예문들이 보여주듯이, 주절의 부정 연산자와 종속절의 대조주제와의 연계에 섬으로 알려진 여러 제약이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의문사구섬(Wh-Island)을 보자. ‘-은/는’이 나타나는 구절의 위치에 따라 문법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기대되는 섬효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 (16) a. 나는 철수는 언제 도착하는지 궁금하지 않다. (다른 사람은 언제 도착하는지 궁금해도)  
 b. \*나는 [언제 철수는 도착하는지] 궁금하지 않다. (언제 다른 사람은 도착하는지 궁금해도)

문법성이 주어-목적어의 구분에 관계없이 ‘-은/는’ 구절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 절 내에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섬제약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섬제약은 굳이 문제의 표현이 절의 맨 첫머리에 나타나야 관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접의문문이 섬을 형성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다른 현상을 볼 필요가 있다.

- (17) a. [[내가 [ t<sub>i</sub> 언제 도착하였는지] 궁금해 하는]<sub>O<sub>i</sub></sub>] 학생이 들어 있다.  
 b. 너는 철수가 언제 도착하였는지 아느냐?

만약 관계대명사구 이동에 의하여 간접의문문에 흔적을 남긴 것이라면, (17a)에서 관계절의 의문사구이동(Wh-movement)은 간접의문문을 건너고 있다. 즉, 간접의문문이 섬을 형성하지 않는 것 같다. 반면에 (17b)에서는 의문사가 간접의문문의 영역을 넘어서 해석되어 언제냐고 묻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간접의문문이 보이지 않는 이동에서 섬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17a)에서 의문사구이동은 의문사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관계절에서 출발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고, 이 가정이 맞는다면 (16a)에서 ‘-은/는’ 구절은 주절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혹은 ‘솔직히 말하면’) 등을 사용하여 확인해보자.

4. 다음 문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 (i) ??나는 [[철수가]<sub>F</sub> 늦었다고]는 투덜거리지 않았다.

이 문장에서의 ‘-고’의 성격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고’가 일반 보문소로 쓰이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용법이 있다.

- (ii) 영희는 내가 놀렀다고 울었다.

이 문장도 ‘-고’에 ‘-는’을 붙이면 이상해진다. 따라서 (i)에서의 ‘-고’가 일반 보문소와 다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16') a. 나는 철수는 사실(=솔직히 말하면) [언제 도착하는지] 궁금하지 않다.

사실이라는 표현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구이므로 주절에 속하는 부사이다. (16'a)에서의 '-은/는' 구절은 주절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16b)와 (17b)를 증거로 의문사구가 섬을 형성하며, '-은/는' 구절도 이 섬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다른 구조에 대하여도 대조주제의 표현이 종속절과 주절의 경계에 나타날 경우 그것이 주절에 속하는지 종속절에 속하는지 구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문장을 보자.

(18) 나는 이 책은 읽어 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마도 다음의 구조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19) 나는 이 책은 (전혀) [pro 읽어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19)에서 전혀는 주절의 부사어이고, 따라서 이 책은도 주절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8)을 다음과 같이 바꿀 때, 문장이 이상해지든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0) \*나는 [전에 이 책은 읽어 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전에 다른 책은 읽어 본 사람을 만났지만)

이러한 관찰은 다른 구조에서도 가능하다. 사실을 나타내는 절의 예를 보자.

(21) a. 나는 철수는 일찍 도착했다는 것을 몰랐다.  
b. 나는 철수는 사실 [pro 일찍 도착했다는 것을] 몰랐다.

(21a)의 문장이 자연스러울 때에는 (21b)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의문사구섬의 논의를 끝내기 위해 앞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은/는'이 극성 의문문(polarity question) 안에 나타나는 경우는 성분 의문문(constituent question)에 나타나는 경우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sup>5</sup>

(22) a. ??나는 철수가 이 책을 읽었는지 궁금하지 않다. (철수가 다른 책은 읽었는지 궁금해도)  
b. (?)나는 철수가 이 책을 읽었는지 물어보지 못했다.  
c. (?)나는 철수가 영화에게 이 책을 주었는지 물어보지 못했다.

이 문장들이 문법적인 문장이라면, 한 가지 가능성은 극성 의문문은 원래 의문사구섬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경우 본 논문의 주장에는 손상이 없게 된다. 다른 한 가능성은 극성의문문이 의문사구섬을 형성하지만 '-은/는'이 의문사구섬제약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면 본 논문의 주장은 약화되는 것이 된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다중 주제문의 가능성 때문에 이동 변형을 통하여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는 독립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23) a. [철수가 읽었는지 궁금한] 책이 두권이 있다.  
b. 나는 이 책은 사실 철수가 읽었는지 궁금하지 않다.

5. 한 논평자가 (22b) 문장을 들면서 그 문장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지적하였는데, 본인에게는 여전히 다음 문장보다는 어색하다고 여겨진다.

(i) 나는 철수가 [이 책을]<sub>F</sub> 읽었는지는 궁금하지 않다.

문법성에 대하여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성분 의문문보다는 훨씬 좋아진다는 점에서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3b)를 보면 (23a)에서 관계대명사 이동 후에 남긴 흔적이 간접의문문 안에 있는지 간접의문문 밖(관계절 안)에 있는지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이동이 있는 구문으로도 위의 두 가능성 중에 어떤 쪽인지 확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대조주제와 외부 초점과의 연계에 섬제약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섬제약이 확인되었다고 반드시 이동을 가정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 기술 등에서 구조의 일관성/단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조주제는 다음과 같이 LF에서 섬제약을 준수하면서 이동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 (24) a. 나는 [철수는<sub>i</sub> [[ t<sub>i</sub>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b. \*나는 [영희는<sub>i</sub> [[[ 가끔 t<sub>i</sub> 소개한] 잡지를] 읽지]] 못했다.  
 c. \*나는 [철수는<sub>i</sub> [[언제 t<sub>i</sub> 도착하는지] 궁금하지]] 않다.

(24a)에서는 부정과 연계되어 해석되기 위하여 주절로 대조주제가 이동한 것을 나타내며, (24b-c)의 두 문장에서는 같은 주절로의 이동이 섬제약을 어긴 것을 나타낸다. 물론 주절로 이동되지 않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화용적 제약을 받게 된다. 이것은 5장에서 논의한다. 초점이나 연산자와의 연계가 의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논하겠다.

### 3. ‘-은/는’의 분포에 대한 의미적 제약

#### 3.1 대조주제문의 의미적 해석

지금까지 ‘-은/는’의 분포와 관련하여 두 개의 영역 중, 대조주제와 외부초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내부초점과 대조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지금까지 초점과의 연계에 통사적인 제약이 없다는 주장은 이 영역에 관한 것이다.<sup>6</sup> ‘-은/는’의 의미적 제약을 논하기 위해 ‘-은/는’의 의미와 역할을 보자. 앞에서 지적했듯이, ‘-은/는’은 (대조)주제표시라고 하였다. Büring(1994)과 Roberts(1995)는 주제를 의문문과 관련하여 분석을 하고 있다. 즉, 대조주제가 있는 문장은 의문사가 두 개가 있는 의문문이 발화된 상황에서 발화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다시 말하면, (25a)는 (25b)의 질문이 주어진 상황에서 부분적인 대답으로 하는 발화로 이해된다.<sup>7</sup>

- (25) a. [철수는]<sub>T</sub> [사과를]<sub>F</sub> 좋아해. (다른 사람은 무슨 과일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b. 누가 무슨 과일을 좋아하냐?

(25b)가 발화된 상황은 전체상황이 ‘누구’에 대한 가능한 대답과 ‘무슨 과일’에 대한 가능한 대답에 따라 하위상황으로 분화된다. 따라서 의문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이것은 어느 한 초점현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i) John only read the book which was recommended by [Mary]<sub>F</sub>.

여기서 초점민감 연산자 only와 이 연산자의 해석을 위하여 대체항을 생성하는 초점인 Mary 사이에 통사적 제약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미 많이 논의되었다. 국어에서도 이러한 관찰이 있어 왔다.

(ii) 철수는 [그 철학자가]<sub>F</sub> 쓴 책을 읽은 사람들하고만 토론을 했다.

이 문장에서 초점과 초점민감연산자 ‘만’ 사이에 두 개의 관계절이 있지만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자연스럽다.

7. Wee (1998)는 ‘-은/는’이 실제로 주어진 의문문보다 확대된 상황을 도입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관찰을 하고 있다.

(i) A: What did the kids eat?  
 B: Mom ate the beans.

여기서 Mom이 대조초점을 받고 the beans가 그 대조초점과 연계되는 초점으로 가정하면 B의 발화는 A의 질문보다 더 확대된 Who ate what?이 발화된 것 같은 상황에 대한 발화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상적인 답화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화제의 부분적 전환으로 봐야할지 모르겠다.

$$(26) \cup \{ \{ x \cdot y \mid y \in ALT(\text{사과를 좋아해}) \} \mid x \in ALT(\text{철수}) \}^8$$

여기서  $ALT(\text{사과를 좋아해}) = \{x \text{를 좋아해} \mid x \in ALT(\text{사과}) \}$

여기서  $A \cdot B$ 는  $A$ 와  $B$ 가 서로의 의미적 유형(semantic type)에 따라 술어-논항의 관계를 이루어 결합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위에서  $x \cdot y$ 는 하위상황 중의 하나를 나타내고, 의문문은  $x$ 와  $y$ 값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며, 대답은 여러 하위상황 중에 실제 상황에서  $x$ 와  $y$  (혹은,  $x$ 와  $y$ 의 목록)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조주제는 무엇을 하는가? 대조주제가 있으면, 문장은 <주제(topic), 진술(comment)>의 구조를 지니게 된다. 그러면 위 문장은 <철수, 사과를 좋아해>의 구조로 분석된다. 이때 Büring(1994)의 분석에 의하면 ‘은/는’은 하위주제(s-topic)를 도입하며, 하위주제는 전체상황 중에 일부의 상황으로 제한하게 된다. 철수라는 주제는 문장이 다음의 하위상황들에 국한한 발화라는 것을 표시한다.<sup>9</sup>

$$(27) \{ \text{철수} \cdot y \mid y \in ALT(\text{사과를 좋아해}) \}$$

이 하위상황들 중에서 실제 상황이 어떤 하위상황인가를 대답하겠다는 뜻이고, 그 하위 상황에 한정하여 대답하면, ‘무슨 과일’에 대한 대답은 ‘사과’라는 것이다.

### 3.2 대체주제형성에서의 의미적 제약

‘은/는’의 분포적 제약을 보기 위해서 우선 ‘은/는’의 위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의미가 비슷하지만 구조적으로 다른 두 문장을 비교하여 보자.

$$(28) \text{ a. } [[\text{철수}]_F \text{는}] [\text{입은 옷이 멋지다}]$$

$$\text{ b. } [[\text{철수}]_F \text{가 입은 옷은}] \text{ 멋지다.}$$

첫 문장은 <주제, 진술>의 구조가 <철수, 입은 옷이 멋지다>이다.  $ALT(\text{철수})$ 가 전체 주제라고 하면 ‘철수’가 하위주제를 이룬다. 반면에 둘째 문장은 <철수가 입은 옷, 멋지다>의 구조를 가지며,  $ALT(\text{철수가 입은 옷})$  중에 ‘철수가 입은 옷’이 하위주제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 철수와 영수만이 있고, 그 둘이 동일한 옷을 입었다고 가정했을 때, 위에서 (28a)처럼 말하면 자연스럽다. 문제가 되는 대체항은 철수에 의하여 생성되어야 하고, 철수와 영수는 그런 점에서 타당한 대조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28b)처럼 말하면, 문제가 되는 대체항은 철수가 입은 옷에 의하여 생성되어야 하는데, 철수가 초점을 받았으므로 대체항은 ‘철수가 입은 옷’과 ‘영수가 입은 옷’이 된다. 그러나 그 둘이 동일하므로 대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28b)는 적절한 발화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문장에서 대체항을 고려할 때, 초점을 받는 구절에 의한 대체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항이 무엇에 의해 생성이 되든, ‘은/는’이 붙은 구절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항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점과 대조주제 사이의 대체항 생성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특정명사구(specific NP)를 들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9) \text{ a. } \text{철수가} [[\text{영희}]_F \text{ 소개한 여자는}]_T \text{ 만난다.}$$

$$\text{ b. } ??\text{철수가} [\text{영희}]_F \text{ 소개한 그 여자(즉, 순희)는} \text{ 만난다.}$$

$$\text{ c. } ??\text{철수가} [\text{영희}]_F \text{ 소개한 어떤 여자(즉, 순희)는} \text{ 만난다.}$$

8.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의문문의 분석과는 다르다. 의문문은 A강세와 B강세의 차이를 두지 않는데, 여기서는 주제-진술을 다루기 위하여 이 둘을 구분하여 좀더 복잡한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9.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위상황은 발화상황을  $c$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i)  $\{c + \text{철수} \cdot y \mid y \in ALT(\text{사과를 좋아해})\}$  (여기서 ‘ $A + B$ ’는  $A$ 라는 상황이  $B$ 라는 발화 후에 결과로 생기는 상황임.)



여기서 첫째 문장은 영희에 초점이 주어져도 자연스럽지만, 나머지 두 문장은 영희에 초점이 주어지면 어색해진다. 특정명사구는 앞에 오는 수식어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어떤 특정한 개체 (여기서는 순희)를 가리키게 된다. 만약 수식어 중의 일부에 초점이 주어지면, 그 초점에 의하여 대체항이 생성되지만, 그 혹은 어떤 등의 표현 때문에 대조주제를 형성하는 ‘영희가 소개한 그/어떤 여자’의 대체항은 하나(즉, 순희)로 고정된다. 즉, 영희에 의하여 생성된 대체항이 무효화된다. 이 특정한 경우를 위하여 특정성 제약(specificity constraint)를 설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좀더 포괄적인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30) 초점에 의한 대체항과 대조주제의 대체항은 1:1 대응관계에 있다.<sup>10</sup>

이 조건은 의미적 제약이며, 통사적 제약이나 화용적 제약과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우선, ‘-은/는’이 붙는 구절(즉, 대체항을 결정하는 영역)과 연산자 사이의 관계는 통사적 관계이지 의미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은/는’이 복합명사구 내부에 나타날 때 부정어와 연계되지 않는 것은 의미적인 요소인 대체항의 결정 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31) 나는 [철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다.

철수의 대체항과 철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소문의 대체항 사이에는 1:1 대응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느 대체항을 고려하든지 문장 전체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 이것은 ‘-은/는’ 구절과 연산자와의 관계는 의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생성된 대체항이 대조주제를 형성하는 구절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은/는’에서 오는 화용적 의미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은/는’이 붙은 표현은 그에 대응하는 대체항에 대한 추론을 야기한다. 만약 문장이 (32a)와 같다고 하면, 그 문장은 (32b)와 같은 추론을 하게 한다.

(32) a. [ $X_P$  A는] [ $Y_P$  B다 ]  
 b.  $\exists x, y[x \in ALT(A) \wedge x \neq A \wedge y \in ALT(B) \wedge x \cdot y]$

여기서 B안에는 대조주제와 연계되어 해석되는 A강세를 받는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대조주제는 A강세를 포함하는 구절  $Y_P$ 와 자매구조(sister)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물론 표면구조에서는 자매구조를 이루지 않는 곳에  $X_P$ 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한  $X_P$ 는 LF에서 섬제약을 준수하며 이동하여 자매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x$ 와 A가 다르다는 조건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A가 독립변수를 도입하기 때문이며, B의 대체항에 대하여는 그런 제약이 없다. (32b)를 (32a)의 전제(presupposition) 혹은 관례적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이라고 한다. 대체항의 확립은 이러한 화용적인 조건의 충족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필요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전제 혹은 관례적 함축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도’가 쓰인 문장을 보면 분명하다.

(33) 철수가 영희도 만났다.

10. 한 논평자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의 반례를 지적하고 있다.

- (i) a. 철수가 [영희가]<sub>F</sub> 소개한 그 여자는 만나기를 꺼려했다.
- b. 철수가 [영희가]<sub>F</sub> 풀었던 그 문제는 풀지 못했다.

논평자가 이 문장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본인에게는 이 문장이 자연스러운 경우 초점을 포함하는 관계절은 비제한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로 생각되며, 비제한적인 관계절은 일반적인 의미 합성과는 다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위 제약과는 무관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 문장에서 영희의 대체항의 생성은 선행대화에 관계없이 생성이 되지만, 이 문장은 앞서서 담화에서 영희의 대체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발화될 경우 자연스럽게 않다. 영희에 대한 대체항의 생성과 대조주제와 관련한 전제 혹은 함축은 별개의 것이다. 대체항의 확립은 전제나 함축과는 별개로 초점에 민감한 연산자가 있는 문장의 의미 해석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확립된 대체항이 전제나 함축에 이용되는가, 진리조건적 의미에 이용되는가 하는 것은 대체항을 이용하는 표현의 의미에 의존한다.<sup>11</sup> '-은/는'의 경우는 '-도'와는 달리 그 전제/함축이 구체적으로 선행 담화에서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체항을 진리조건적 의미에 이용하지도 않지만, 대체항의 확립은 초점 자체의 특성으로 생각되며, 표현된 주제와 대조되는 표현되지 않은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진술을 추론하는데 대체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 4. '-은/는'과 대체주제와의 관계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다루어진 문장에서는 '-은/는' 구절 내부에 대체항을 생성하는 초점을 포함하고 있고, '-은/는' 구절은 그 초점이 생성하는 대체항에 대응되는 대체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초점투사(focus projection) 현상이 관여된다. 그러나, 대체주제가 '-은/는'구절보다 더 큰 성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초점확대 현상이라고 부르겠다.<sup>12</sup> 초점확대는 다양한 구문에서 관찰된다.

- (34) 기온은 떨어저도, 바람은 불지 않아서, 덜 춥게 느껴진다. (자동사 주어)  
 (= 기온이 떨어지기는 해도, 바람이 불지는 않아서, 덜 춥게 느껴진다.)  
 철수가 돈을 평평/물 쓰듯 쓰면서, 빚은 갚지 않는다. (목적어)  
 (= 철수가 돈을 평평/물 쓰듯 쓰기는 하면서, 빚을 갚지는 않는다.)  
 그 일이 빠리는 끝나겠지만, 쉽게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부가어)  
 (= 그 일이 빨리 끝나기는 하겠지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야.)

이 예들로부터 대조주제가 '-은/는'이 붙은 구절보다 더 큰 구절이 대체항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문장에서 문제의 대체항은 '기온이 떨어진다', '바람이 분다' 등의 날씨와 관계가 있는 사건(event)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은/는'이 붙은 표현은 날씨와 바람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가정, 즉 해석에 관여하는 대체항이 대조주제표시가 붙은 구절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가정에서 벗어나는 경우이다.

이런 예외적인 행동 뒤에는 예외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은/는'구절이 논항의 전형적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초점확대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 (35) a. 돈이 떨어지면, 철수가 신문을 돌리는 일은 있어도, 영희가 파출부 일을 나가는 일은 없을 거야.  
 b. 돈이 떨어지면, 철수가 신문은 돌려도, 영희가 파출부 일은 나가지 않을 거야.  
 c. ??돈이 떨어지면, 신문은 철수가 돌려도, 파출부 일은 영희가 나가지 않을 거야.  
 d. ??돈이 떨어지면, 신문을 철수는 돌려도, 파출부 일을 영희는 나가지 않을 거야.

(35a)는 초점이 '철수가 신문을 돌리다'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35b)는 이런 의미로 자연스럽지만, (35c-d)는 이런 의미로 어색하다. 이것은 초점의 확대가 문장요소의 이동에 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부가어의 경우도 초점이 확대되는 경우 동사 앞자리로 제한된다. 아래의 부사들은 그 자체가 대조주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11. 대체항을 진리조건적 의미에 활용하는 것으로 '-만'이나 그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표현을 들 수 있다.  
 12. '-만'과 '-도'에 대하여도 같은 관찰이 되어 왔다. 최재용(1996)과 김용범(1999) 참조. 따라서 초점확대현상은 국어에서 초점과 관련한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설득력있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단지 초점확대 현상이 보이는 경우의 예외적인 특성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 (36) a. 철수가 영화를 일찍 만났다.  
 b. 철수가 일찍 영화를 만났다.  
 c. 철수가 영화를 일찍은 만났다.  
 d. ??철수가 일찍은 영화를 만났다.
- (37) a. 철수가 그 일을 빨리 끝냈다.  
 b. 철수가 빨리 그 일을 끝냈다.  
 c. 철수가 그 일을 빠리는 끝냈다.  
 d. ??철수가 빠리는 그 일을 끝냈다.

여기서 (b)문장들이 가능한데 비하여 (d)문장들은 어색하다. 그리고 (c)의 문장들에서 부가어에 붙은 대조주제는 동사까지 확대된다. 이로부터 부가어는 초점확대를 초래하는데 자신이 수식하는 동사 바로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 자리가 부사어의 정상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부사어가 다 이런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두 빈도부사를 보자.

- (38) a. 철수가 영화를 자주 만났다.  
 b. 철수가 자주 영화를 만났다.  
 c. 철수가 영화를 자주는 만났다. (그러나 깊은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d. ??철수가 자주는 영화를 만났다.
- (39) a. 철수가 영화를 가끔 만났다.  
 b. 철수가 가끔 영화를 만났다.  
 c. 철수가 영화를 가끔은 만났다.  
 d. 철수가 가끔은 영화를 만났다. (자주는 만나지 않았다)

자주나 가끔이나 모두 빈도부사인데, 자주는 다른 부가어와 같이 동사 앞에 와야 하는데, 가끔은 그렇지 않다. Choi(1989)는 자주에 ‘-은/는’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상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단지 대체항이 빈도부사가 되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체항이 자주가 아니라 ‘자주 만났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끔의 경우는 (39d)에서처럼 이러한 제약이 없으며, 이것은 가끔 자체가 대체항을 유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철수가 자주는 만나지 않고 가끔 만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sup>13</sup>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점확대현상은 동사와 같은 술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초점확대현상은 술어를 포함한 어떤 부분에 대하여 대체항을 형성하려는 경우에 정상적으로는 구조상 술어에 대조주제표시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 대신에 부사어, 논항 등에 대신 붙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은/는’을 술어에 직접 붙일 수는 없고, 그것을 명사화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구조가 복잡해지기때문일 것이다. 초점확대현상은 구조의 복잡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술부를 대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초점이 확대되는 경우 어순이 고정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대조의 범위를 ‘-은/는’의 위치로 표시하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초점확대현상은 일반 대조초점에서 관찰되지 않는 제약들을 보이고, 따라서 별도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조초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예외적인 점을 예측할 수 있다.

13. 이 두 빈도부사의 차이는 부정문에서도 나타난다.

- (i) a. 철수가 영화를 자주는 만나지 않았다.  
 b. 철수가 영화를 가끔은 만나지 않았다.

(ia)는 ‘자주 만나지는 않았다’의 뜻이 되지만, (ib)는 ‘가끔 만나지는 않았다’의 뜻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자주는 초점확대 현상을 보이고 있고 가끔은 그렇지 않다.

### 5. 종속절에서의 '-은/는'의 분포에 대한 제약

앞 절에서 '-은/는'의 분포가 통사적 제약과 의미적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실제의 문장들을 보면, '-은/는'의 분포는 위의 두 제약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예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듯한 인상까지 받게 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은/는'의 화용적 특성에 입각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통사적 제약을 논의할 때, 대부분의 예문은 종속절의 대조주제와 주절에 있는 연산자나 초점 사이의 관계를 보이기 위한 문장들이었다. 그러나 종속절에 있는 대조주제가 항상 주절에 있는 연산자와 결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40)의 예문은 (41i)과 (41ii)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41i)의 의미는 통사적 제약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절 내의 연산자나 초점과 연계되는 (41ii)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40) [철수가 영희에게는 빌려주는] 책이 두 권 있다.

- (41) (i) ??철수가 영희에게는 빌려준 책이 두 권 있고, 다른 사람(영수)에게는 빌려준 책이 세 권 있다.  
 (ii) 철수가 영희에게는 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않는 책이 두 권 있다.

(40)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41ii)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섬을 형성하는 종속절 속에 대조주제가 나타나면 문장이 이상해진다.

- (42) a. \*영희에게 [철수는 읽은 책이] 두 권이 있다.  
 b. ??영희가 철수는 초대한다면, 파티가 재미있을 것이다.  
 c. ??철수는 도착하기 전에 이 일을 끝내자.

이 문장들이 모두 같은 이유에서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조별로 따로 설명하겠다.

우선 관계절부터 살펴보자. (42a)와 대조적으로 다음의 문장들은 자연스럽다.

- (43) 영희에게는 [[철수는  $t_i$  읽고 영희는  $t_i$  읽지 않은] $O_i$ ] 책이 두 권이 있다.  
 [[철수는  $t_i$  읽은] $O_i$ ] 책을 영희는 읽지 않았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은/는' 구절의 대체항에 대한 내용이 같은 문장 내에 있다는 것이다. (42a)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절에서의 '-은/는'이 유발하는 전제/함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계절에서의 '-은/는'이 요구하는 대체항에 대한 전제/함축은 '철수 이외에 어떤  $y \in ALT(\text{철수})$ 는  $x$ 를 읽다(혹은, 읽지 않는다)'가 되는데, 문제는  $x$ 가 항상 관계절 내의 흔적에 의하여 소개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포함하는 전제/함축은 해당 문장의 발화(이전)상황에서는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철수가 무슨 책을 읽든지, 철수의 대체항도 동일한 책을 읽어야(혹은, 읽지 않아야) 하지만 발화(이전)상황에서 그러한 명제를 자연스럽게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 그러나 관계절의 '-은/는'의 전제/함축이 동일 문장 내에서 만족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43)에서 '철수는  $x$ 를 읽다'의 전제/함축이 '영희는  $x$ 를 읽지 않다'에 의하여 만족된다. 즉, 철수가 무엇을 읽든지, 영희는 그 동일한 것을 읽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계절의 '-은/는'은 구체적으로 같은 문장 내에서 대체항에 대한 전제/함축이 만족되지 않으면 모두 비문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은/는'이 구체적으로 대체항이 언급되지 않고 관계절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제/함축의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전제/함축은 발화이전상황(main context)뿐만 아

나라 국부상황(local context)에 의해서도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sup>14</sup> 다음의 예들을 보자.

(44) 모든 여학생들이 자기의 남자친구를 파티에 데리고 왔다.

이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의 여학생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전제를 유발하지만 그 전제는 발화이전상황에서는 만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반드시 모든 여학생에 의하여 결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제가 만족되는 곳은 결국 국부상황이 된다. 마찬가지로 관계절 내에서도 전제/함축은 만족될 수 있다. 그렇다면, 관계절에서의 ‘-은/는’이 어색한 것은 이러한 전제가 국부상황에서도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은/는’의 전제/함축이 관계절 내에서 표면적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지만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일반적으로 ‘-은/는’ 구절이 배타성(exclusiveness)의 의미를 가지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다음의 두 담화를 비교하여 보자.

(45) 철수에게 책이 세 권이 있는데, 이중에 하나라도 빌려 간 사람이 창수, 영수, 영희이다. 영희는 세 권 중에 한 권밖에 빌려가지 못했고 다른 두 사람은 세 책 모두 빌려갈 수 있었다. [철수가 영희에게는 빌려주지 않는] 책이 두 권 있다.

(46) ?철수에게 책이 세 권이 있는데, 이중에 하나라도 빌려 간 사람이 창수, 영수, 영희이다. 영수는 세 책 모두 빌려갈 수 있었는데, 영희와 창수는 세 권 중에 한 권밖에 빌려가지 못했다. [철수가 영희에게는 빌려주지 않는] 책이 두 권 있다.

여기서 마지막 문장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자. 첫째 담화에서는 영희에게만 두 권의 책을 빌려주지 않고, 둘째 담화에서는 영희뿐만 아니라 창수에게도 두 권의 책을 빌려주지 않는데, 둘째 담화는 다소 어색하게 들린다. 이것은 ‘-은/는’이 관계절에 사용될 경우, ‘-은/는’의 귀절이 배타성의(화용적) 의미를 가져야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5</sup> 또한 관계절 내에 부정사가 있으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다.

(47) 영희에게 [철수는 읽지 않은] 책이 두 권 있다.

(48) (?)[철수가 영희에게는 빌려주는] 책이 두 권 있다.  
[철수가 영희에게는 빌려주지 않는] 책이 두 권 있다.

(47)은 (42a)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고, (48)의 두 문장은 모두 자연스러운 편이지만 부정문이 좀더 자연스럽게 들린다.

부정과 배타성(exclusiveness)이 왜 대체항에 대한 언급 없이, 즉 대체주제에 대한 전제/함축이 표면적으로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는’의 사용을 자연스럽게 만드는가? ‘-은/는’의 전제/함축이 구체적으로 만족되지 않을 경우, 수용(accommod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만족되어야 한다. 수용이라는 과정은 그 수용이 쉬워야 하고, 그 내용이 의외성이 없어야 한다. 부정과 배타성은 바로 수용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것 같다. 부정과 배타성은 ‘-은/는’과 연계되어 해석되는 또 다른 초점의 대체항의 가능성을 단순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부정어가 ‘-은/는’과 연계되어 해석될 경우, ‘-은/는’이 부정/긍정의 대조가 대체항을 이룬다는 것이 구체적인 표현을 통하여

14. Soames (1982), Heim (1983) 등 참조.

15. 주절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i) 책이 세 권이 있는데, 이 세 권 중에 하나라도 읽은 사람이 철수, 영수, 영희이다. 철수는 그 중에 두 권만 읽었고 영수도 두 권만 읽었고, 영희는 모두 읽었다.

두 권만 읽은 사람이 두 사람이지만 ‘철수는’의 사용은 문제가 없다. 이것은 대조주제의 잘 알려진 특성이다.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긍정절에서는 ‘-은/는’이 부정/긍정의 대체항이 연계되어 해석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부정/긍정의 대조 이외에 다른 대체항의 생성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철수는 읽은’이라고 하면, 대체항으로 ‘다른 어떤 사람을 안 읽은’과 같은 대체항 뿐만 아니라 ‘철수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읽는 것 이외에 다른 활동에 관여하는’의 형태의 대체항을 생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정과 같이 초점이 주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해석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sup>16</sup> 배타성도 수용을 쉽게 하는데 기여한다. 배타성을 지니는 해석이 배타성의 의미를 담지 않는 경우보다 대체항에 대한 가능성을 단순화시킨다. ‘철수 이외에는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철수 이외에 어떤 사람은 읽고, 또 어떤 사람은 읽지 않는다’는 해석보다 상황에 대한 추론이 훨씬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건절을 보자. Heim(1982, 1992)의 동적의미론(dynamic semantics)에서의 조건문의 분석을 보면, 한 상황 *c*에서 ‘(만약) A면, B다’라고 발화하면 *c*에 A가 전하는 내용이 더해지면, B라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A는 *c*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B는 *c*+A에 대하여 해석한다. 따라서 조건절 A에서의 전제/함축은 발화상황 *c*에 의하여 만족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제/함축이 조건문 이전에서 구체적으로 만족되면, 문장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42b)는 왜 이상한가? ‘영희가 철수는 초대한다면’은 ‘영희가 철수 이외의 다른 사람(예를 들어, 영수)은 초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함축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 (49) ??영희는 철수와는 친하지만, 영수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영희는 영수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희가 철수는 초대한다면, 파티가 재미 있을 것이다.

역전히 조건절의 ‘-은’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것은 조건문의 주절이 조건절의 ‘-은/는’에 의해 표현되는 ‘영수는 초대하지 않고 철수는 초대하는’ 대조성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단지 철수를 초대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 같다.

‘-은/는’은 대조주제를 나타내는데, 대조주제라고 하는 것은 대체항에 의하여 대조되는 두 개 이상의 주제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개개의 대체항은 전체주제에 대한 하위주제를 형성하고, 각각의 하위주제에 대하여 별개의 진술이 이루어진다. 만약 조건절에 ‘-은/는’에 의하여 하위상황이 소개되는 경우에, 조건문 전체가 그 하위상황에 대한 발화로 이해되려면, ‘-은/는’의 구절이 주절의 영역을 가져야 한다. 즉, (50a)는 (50b)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통사적 제약에 의하여 불가능하다.

- (50) a. 철수가 그 일은 도와준다면, 일이 빨리 끝날 것이다.  
b. 철수가 그 일은 도와준다면, 일이 빨리 끝나고, 다른 일은 도와준다면, 일이 늦게 끝날 것이다.

따라서, ‘-은/는’이 조건절에서 하위상황을 소개하더라도, 문장 전체는 전체상황에 대한 발화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은/는’의 조건절도 전체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표현된 것은 하나의 하위상황이지만,

16. 구체적인 표현으로 부정이 아니더라도 수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i) ??영희에게 [철수는 읽은] 책이 두 권 있다.  
(?)영희에게 [철수만은 읽은] 책이 두 권 있다.  
영희에게 [철수만은 끝까지 읽은] 책이 두 권 있다.

‘만’은 배타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은/는’이 주어에 나타날 경우 배타성만으로는 부족한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 초점이 주어지기 쉬운 표현(여기서는 끝까지)이 주어지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부정어는 다른 표현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배타성까지 수반하여 수용의 용이성을 높이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위상황이 전제/함축되어 있으므로, 그 두 상황을 복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sup>17</sup> 그러면 조건문의 결과절은 이 복합상황에 대한 결과이어야 한다. (49)가 이상한 것은 파티가 재미있는 것이 철수는 초대하고 영수는 초대하지 않은 결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51)이 좀더 자연스러운 것을 설명해준다.

- (51) 영희는 철수와는 친하지만, 영수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영희는 영수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영희가 철수는 초대한다면, 영수와 더욱 사이가 나빠질 것이다.

영수와 사이가 더욱 나빠지는 것은 단순히 철수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수는 초대하고 영수는 초대하지 않는 것의 결과이다.

조건문의 조건절 내에서 ‘-은/는’의 전제/함축이 만족되지 않더라도, 수용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조건절 내에서 만족됨으로써 조건절의 표현된 내용과 그에 수반되는 대조적인 전제/함축이 통합적으로 전체상황을 형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조건문의 결과절도 전체상황에 대한 발화로 이해되고, 궁극적으로 전체 조건문이 전체 상황에 대한 발화로 이해된다. 이것은 조건문 뿐만 아니라 ‘-은/는’이 종속절에 쓰이는 모든 문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은/는’이 종속절에 쓰이는 경우, 표현된 내용과 그에 대조되는 전제/함축이 통합적으로 전체상황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 관계절에도 해당되고, 시간을 나타내는 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은/는’이 시간절에 쓰이면 대체항에 대한 전제/함축이 발화상황에 의해 만족되든, 같은 시간절 내에서 만족되든 부자연스럽다.

- (52) a. ??철수는 웃었다. 영희는 울기 전에, 이 물건을 되돌려 놓아라.  
 b. ??[철수는 웃고, 영희는 울기 전에], 이 물건을 되돌려 놔라.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만’의 문장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 (53) ??철수만 도착하기 전에 이 일을 끝내자.

‘...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건의 시점에 대하여 그 이전이라고 해야 하는데, ‘철수만 도착하기 전’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는 사건들을 모두 본 후에 철수만 도착하게 되는 시간을 정하게 된다. 즉 도착하는 사건들이 이루는 전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시간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상황은 특정한 사건을 정해주지 못하고 따라서 시간을 결정할 수 없게 한다. 만약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철수만 왔다고 가정하면, 철수만 오기 전이라는 것은 언제인가? 따라서 ‘-만’과 ‘-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은/는’의 경우도 유사한 이유에서 시간절에 쓰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52b)에서 대조를 이루는 두 하위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시간을 정하기 어렵게 한다. 이것은 ‘-은/는’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54) ??철수가 웃고 영희가 울기 전에 이 물건을 되돌려 놔라.

사건과의 관계로서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 사건 두 개가 언급되면 그 둘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한 어느 한 사건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52a)에서는 시간절에 ‘-은/는’이 나타난 사건이 한 개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상황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전제/함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전체상황을 만들게 되므로 결국 시간절은 (52b)와 같은 의미가 된다. 따라서 문장 전체가 이상하게 된다.<sup>18</sup>

17. 관계절에서도 같은 과정이 진행된다. 즉, 관계절에 ‘-은/는’이 있을 경우, 실제로 표현된 것 뿐만 아니라 표현되지 않은 전제/함축까지 관계절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지 조건문과의 차이점은,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관계절의 경우 ‘-은/는’에 의한 전제/함축이 주상황에 의하여 만족될 가능성이 훨씬 적으므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18. 한 논평자는 다음의 문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종속절에서의 ‘-은/는’에 의하여 유발되는 전제는 단순히 발화상황에 의하여 만족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표현된 내용과 통합적으로 전체상황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도’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도’도 마찬가지로 전제/합축을 유발하는데도 ‘-전에’와 함께 자연스럽게 쓰인다.

(55) 영희가 도착하였다. 철수도 도착하기 전에 이것을 다 먹자.

(55)에서 ‘-도’는 철수 이외에 어떤 사람이 도착하였다는 전제/합축을 유발하지만, 그것과 통합적으로 전체상황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 즉, 마지막 문장이 ‘[영희가 도착하고 철수도 도착하기] 전에 이것을 다 먹자’의 의미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 자체가 하위상황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은/는’이 ‘-전에’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 단순히 전제/합축을 유발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전제/합축을 유발한다고 하여 항상 복합상황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종속절의 ‘-은/는’이 하위상황을 유발하고 ‘-은/는’ 구절이 주절의 작용역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복합적 전체 상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좀더 분명해졌다.

지금까지 세 가지 종속절을 보았는데, 구문마다 특징이 있지만 결국 모든 종속절이 수용을 통하든 구체적으로 전제/합축이 만족되는 전체상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구문의 경우에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표현된 내용과 전제/합축이 항상 전체상황을 이루려면 단순히 전제/합축이 발화이전 상황에서 만족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종속절이 이루는 국부상황에 동일한 전제/합축이 반복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24b)에서와 같이 ‘-은/는’의 전제/합축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화용적 제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은/는’의 의미기술에 의미론적 의미와 화용론적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즉 (56a)의 의미는 (56b)와 같이 기술되어야 하고  $x$ 와  $y$ 는 조응사(anaphor)로서 발화상황에 의하여 결속되어야 한다.

(56) a. [ $x_P A$ 는] [ $y_P B$ 다]  
b.  $x \in ALT(A) \wedge x \neq A \wedge y \in ALT(B) \wedge x \cdot y \wedge A \cdot B$

여기서  $A \cdot B$ 는 의미론적 의미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화용론적 의미에 해당한다.  $x$ 와  $y$ 가 존재양화사에 의하여 결속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황에 의하여 결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제와 주장이 연결됨으로써 각각의 하위주제에 대한 명제가 결합하여 전체상황을 형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x$ 와  $y$ 에 대한 구체적인 결속자가 없을 경우에 수용의 과정을 통하여 결속자를 상황에 추가함으로써 두 변수  $x$ 와  $y$ 는 항상 결속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sup>19</sup>

(i) a. [철수는 도착하고, 영희는 떠나기 전에] 이것을 먹자.  
b. 철수는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영희는 도착한 후에 이것을 먹자.

(ia)의 경우 문장의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착과 출발이 동일한 시점에 일어나면서 두 사건이 복합적으로 한 사건을 형성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리고 (ib)의 경우 ‘...전에’와 ‘...후에’가 대조주제와 연계되는 초점에 해당하므로 종속절 내부의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종속절과 주절 사이의 연계가 문제가 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에’나 ‘후에’가 종속절과 주절의 경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19. 이것은 van der Sandt (1992)가 제안한 전제에 대한 조응사분석(anaphora analysis of presuppositions)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van der Sandt의 분석에서는 전제는 선행사와 조응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여, 조응관계가 성립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전제의 역할을 끝낸다. 그러나 ‘-은/는’의 전제는 단지 선행사를 확인하거나 조응관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제의 내용이 항상 국부상황에서도 의미의 일부로 더해져 전체상황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전제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이중으로 수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발화상황에도 수용이 일어나고 국부상황에도 수용이 일어난다. 명제에 대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 동사의 보문 내의 전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이 요구된다.



6. 결론

‘-은/는’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일부의 자료에 대하여 일부의 요소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도 포괄적인 자료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은/는’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의미적, 그리고 화용적 요소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은/는’의 쓰임에 제약이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초점과 초점 민감 연산자 사이의 제약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은/는’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영역이 두 영역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 영역은 통사적 제약을 받는 영역이고 다른 한 영역은 의미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보였다. 이 부분이 ‘-은/는’의 분포에 작용하는 형식문법(formal grammar)의 범주에 들어가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은/는’의 중심적인 의미는 대조주제라고 가정하였고, Büring(1994)의 주장대로 하위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은/는’이 종속절에 쓰일 경우, 통사적 제약 때문에 문장 전체를 그 하위주제에 대한 문장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하위주제에 대한 내용과 ‘-은/는’이 유발하는 전제/함축이 통합적으로 전체상황을 나타내야 한다. 관계절에서는 구조상 ‘-은/는’이 유발하는 전제/함축이 발화(이전)상황에 의하여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accommodation)의 과정을 거쳐서 전체상황을 형성할 수 있는데, 수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배타성이 관여한다. 그리고 시간절의 경우 ‘-전에’는 통합적 상황을 나타내는 절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은/는’이 ‘-전에’와 쓰이지 않는다.

참고 문헌

김용범 1999. 한정사 ‘도’의 의미-화용론. 『언어와 정보』 3권 2호, 85-96.  
 서정수. 1991.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의 개관』 서울. 한국문화사.  
 최재웅 1996. 「-만」의 작용역 중의성. 『언어』 21. 2.. 671-692.  
 Bolinger, D. 1965. Forms of English: Accent, Morpheme, Order. I. Abe and T. Kanekioy (e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üring, Daniel. 1994. Topic. In P. Bosch & R. van der Sandt (eds.) *Focus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2, 271-280.  
 Büring, Daniel. 2000. On D-Trees, Beans, and B-Accent. ms. UCLA.  
 Choi, Seungja. 1989. A Reanalysis of the Postpositional Particle *nu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397-406.  
 Chomsky, N. 1986. *Barriers*. Cambridge: MIT Press.  
 Drubig, H.B. 1994. Island Constraints and the Syntactic Nature of Focus and Association with Focus. *Arbeitspapiere des Sonderforschungsbereichs* 340.  
 Han, Chung-Hye. 1998. Asymmetry in the Interpretation of -(n)un in Korean. *Japanese Korean Linguistics* 7, 1-15.  
 Heim, I.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Heim, I. 1983. On the Projection Problem for Presuppositions. *Proceedings of the Second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114-25.  
 Heim, I.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nd the Semantics of Attitude Verbs. *Journal of Semantics* 9, 183-221.  
 Kim, Joung-Ran. 1994. *Korean Topic Construc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Jackendoff, R.S.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IT Press.  
 Roberts, Craige. 1996. Information Structure in Discourse: Towards an Integrated Formal Theory of Pragmatics. ms. Ohio State University.  
 Rooth, M. 1985. *Association with Focu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sterdam.  
 Rooth, M. 1992. A Theory of Focus Interpreta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75-116.  
 Soames, S. 1982. How Presuppositions are Inherited. *Linguistic Inquiry* 13, 483-545.

- van der Sandt, R. A.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s Anaphora Resolution. *Journal of Semantics* 9, 333-77.
- Wee, Hae-Kyung. 1998. Semantics and Pragmatics of Contrastive Topic in Korean and English. *Japanese Korean Linguistics* 7, 549-565.

접수일자: 2001년 9월 23일

게재결정: 2001년 11월 5일